

이렇게 들었다

스승과 제자

“사자상승 정신 되새기자”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이나 하면, 첫째는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고, 둘째는 존경해 봉사함이고, 셋째는 존중해 기대함이고, 넷째는 가르침을 바르게 따름이고, 다섯째는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곁에서 섬기고 보지 못할 때는 가르침을 생각하여, 호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며, 사람들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중심경>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참으로 여겨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연료한 동료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생을 나무라던 교사가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팔이 비틀리고 넘어진 채 마구 짓밟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학교측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까 봐 쉬쉬했지만 폭행 당한 교사는 폭행을 하고도 천덕 스럽게 이를 부인한 학생들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워 사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사를 짓밟았다는 것은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 시내 536개 초등학교 중 216개교가 이날 휴교를 했다. 이유는 촛지를 둘러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승의 날 휴교가 올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99년과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교장들이 모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휴교를 한 바 있다.

교사들에게는 생일이나 마친가지만 스승의 날에 우리 교사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며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조차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사미위외경>에 “제자가 스승을 모시고 갈 때에는 발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자세를 나타낸다. 제자는 마땅히 스승 앞에서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스승의 꾸짖음에 대꾸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교권취락, 교실붕괴, 교육위기로 진단되는 오늘날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특히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 번 취락한 권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의 백년대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스승에서 제자로 진리의 법이 이어질 때 이를 ‘사자상승(師資相承)’이라 한다. 스승의 권위와 제자의 존경심이 없�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자상승’의 정신을 가다듬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우리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한영우 기자

왜 사람들은 ‘친구’에 열광하나

물자 세상보기

가난과 고통 속의 아이들을 미화한 ‘천국의 아이들’보다 잔 점수를 준 평론가에 섭섭했다. 별 두개 반이구나! 여전히 판매 미약이 스테디 대종상에서도 ‘친구’는 ‘하루’에 비하면 거의 집착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은 친구를 찾는다. 육백만이 친구를 보러 갔다. 쉬리라는 ‘일부 일처제’ 돌고기를 앞치르고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섰다. 왜 사람들은 친구에 열광하는 걸까? 다시 한번 우정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줘서? 아니면 우정의 야비함과 덧없음을 보여주기 때문? 혹은 지는 북고 열풍이라 한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이야 항상 있는 현상 아

닌가? 복고주의는 매년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해석이다. 20여년 전에도 그 말을 따갈게 들은 적이 있다. 퇴행적 정서라고 남들이 비난하던 말건 자고로 나이든 자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대해 미련을 품고 과거를 미화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뉴런세포는 절대로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현재까지의 우여곡절과 현재 갖고 있는 가치관 및 욕망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걸러낸다. 사실 남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 사항인지도 모른다.

압제적 폭력 굴복하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통쾌함을 맛보았다

나는 다른 자리에서, 친구 열광을, 성평등주의 대세에 밀려 포박하고 있었던 거부장적 정서를 자극하고 그것을 무대위로 끌어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

네 명의 사나이들이 펼치는 우정의 세계에서 완전히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 그 흔하지 않은 섹스 장면도 볼 수 없다. (영화 속의 비디오프로 잠깐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그것은 순수한 남성성의 분출이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남성적인 영화를 본적이 있는가? 남자들은 우정을 위해서 혹은 우정의 배반을 위해서 섹스도 거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수한’ 남성영화에 여성이, 아줌마들까지 열광한 이유는? 아마도 여성성이라는 차별적 전면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조폭들의 원시적 폭력의 분출과 금기 없는 욕설은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왜 10대 (사실은 입장 불가 대상이지만) 20대 젊은이들까지 흥분하는가?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존석과 동수가 교사의 부당한 폭력과 폭언에 대해 하여 대드는 장면, 트로피로 가득찬 북



권혁범

대전대 교수

정치학

당대비평 편집위원

수의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압제적 폭력에 굴복하며 비겁하게 살아온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인들은 이 장면에서 통쾌감을 맛보았다. ‘결승가정’에서 자라는 이들이, 아버지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이들이 학교 안의 폭력에 정면으로 저항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도의 진열장을 뒤흔들고 때려 부수는 장면이 있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잘 치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위선에 저항하지 못하고 적당히 눈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압제적 폭력에 굴복하며 비겁하게 살아온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인들은 이 장면에서 통쾌감을 맛보았다. ‘결승가정’에서 자라는 이들이, 아버지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이들이 학교 안의 폭력에 정면으로 저항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열린 마당

21세기 문명의 갈등과 화해

“평화만이 평화창조 가능”

고형일 <전남대학교 교수·교육학>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북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로 진보적 지식인들이 평화의 외적인 조건에 눈을 돌린 데 비해 보수적 지식인들은 당위론과 국수주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왔다. 종교적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조망하는 입장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평화를 위한 내적, 정신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4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티베트 침공으로 120만 명의 티베트인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문화유산인 불교가 파괴되었으며 청장구역이 핵실험의 대상이 되고 만 상황에서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대한 비폭력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독립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비폭력주의를 주장한다. 즉 평화만이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달라이 라마의 평화사상은 전쟁을 방지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뿐 아니라 모든 중생을 돕는다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평화사상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인 ‘중도’에 기초하고 있다. 중도란 연기법(緣起法)에 의거하여 여기서는 현상물들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파악한다. 평화도 그 씨앗이 뿌려지고 길러져야만 달성될 수 있는데, 달라이 라마는 그 씨앗으로 개인의 내적·정신적 각성 즉 특히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구인들이 평화를 전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만 보는 시각을 교정해 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방지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화학적 무장뿐만 아니라 수행자적 자세를 갖춘 지식인상이 신중히 탐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웃종교 인정할때 화해”

김진 <크리스찬 아카데미 선임연구원>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문명의 흐름을 종교문명의 만남과 갈등을 중심으로 바라본 이후 세계 지성인들 사이에서 현 세계문명의 흐름을 ‘종교’라는 코드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종교간의 갈등은 단순히 기성화된 종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종교인과 그 종교의 내적인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종교현상이다.

이러한 종교간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그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재다. 이웃 종교들에 대한 무지가 종교간의 갈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의 부재는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고 또 귀결되기도 한다. 현상적으로 볼 때 종교간 갈등의 바탕에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것’으로 단정지어버리는 오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교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종교인의 공통된 정체성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각 종교의 다양한 모습을 다름으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 정체성에 대한 신뢰 속에 일치점을 향한 노력을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간의 우정을 형성해야 하고 또 공동의 실천적 활동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종교상황을 돌아볼 때 외국의 경우처럼 큰 규모의 폭력과 비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종교간 갈등의 씨앗들이 발아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의 활동은 어느 특정 종교나 종교지도자들의 행동영역으로 간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적인 종교인의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종교간 갈등의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하나의 평화운동이기도 하다.

“불교엔 통일의 지혜 있다”

법륜 스님 <좋은벗들 이사장>



민족의 화해와 통일은 단순한 과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현재적 과제다. 이런 시대에 불교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까?

2600여년 전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던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태생에 의해 귀천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신분평등을 주장하셨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를 허락함으로써 남자에 종속되어 살 수 밖에 없는 당시에 여성에게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신라의 고승들도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삼국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몸소 앞장 섰다. 또한 원효는 승려의 지위마저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통일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셨다. 용성과 민해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삼일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시고 갖가지 고생을 겪으셨고 또한 경전을 번역하고 포교당을 내고 유신론을 쓰면서 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셨다.

이렇듯 불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다. 근본불교의 연기론과 중도사상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사상, 선불교의 견성성불, 원효의 화쟁 사상 등은 오늘 우리에게 갈등의 근원을 꿰뚫어 보고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다. 일체의 어둠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뒤처진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살피어 할 것이다. 특히 불교는 사상적으로 평화운동, 역사적 전통으로는 민족운동을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불교의 장점을 잘 살려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 가장 앞장선다면 민주화의 시대에 다 하지 못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일시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다. 종단은 행정적 뒷받침 외에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스님에서 직접 만든 명가인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용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경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약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오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 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중풍·혈·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향약재료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식

방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2종의 한약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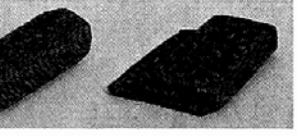


국민은행 076-21-0658-363 동업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배개, 방석

배개의 내용물 약재는 32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복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 국화배개, ‘박’ 박배개, ‘매’ 밀배개, ‘질’ 질배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배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진은 배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배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